



보도 일시	2021. 1. 14.(금) 10:30	배포 일시	2021. 1. 14.(금) 09:30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승태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이상홍 (lsh0622@korea.kr)

##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및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방문

□ 이덕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4(금) 09:00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위치한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함

- ❶ 1월 물가 집중관리 및 현장점검 계획(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 ❷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sup>1)</sup>  
(농식품부·해수부, 제목만 공개)
- ❸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농식품부·해수부, 제목만 공개)

□ 최근 발표된 ‘21.12월 미국·유로존 물가상승폭이 11월보다 확대되는 등 전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12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2.6월 이후 40년만에 가장 높은 7.0%를 기록하였고, 독일도 11월 5.2%에 이어 12월에도 5.3%를 기록하며 ‘92년 이후 최고치를 연속 갱신하고 있으며, ‘21.11월 OECD 평균 5.8%도 2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 우리는 ‘21.12월 물가상승률(3.7%)이 11월(3.8%)보다 둔화되었으나, 1월은 연초 가격인상 등으로 통상 전월비가 상승하는 달이며,
- 특히, 2월초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수요 등 상방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등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

⇒ 이에 금일 물가관계차관회의는 현장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동향을 함께 점검하고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개최함

□ 이 차관은 물가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설 명절전까지 오늘을 포함해 향후 3주간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주요정책 점검차관회의를 물가에만 집중한 물가관계차관회의로 운영하겠다고 밝힘

1) 물가 부처책임제 TF 논의를 거쳐 농식품부·해수부가 소관분야 대응방안을 마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상정

- 또한 향후 3주간 물가관계차관회의는 현장 회의로 개최하거나 회의 직후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과 연계하여 농축수산물 가격·수급동향 및 ‘설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힘
- 이 차관은 1월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전 부처가 물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며, 특히 부처별 소관분야 업계 간담회 및 물가 현장점검을 통해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함
- 아울러, 물가 부처책임제를 통해 첫 번째로 물가안정방안을 상정한 농식품부·해수부에 딸기·화초 등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중인 품목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 최근 오름세가 가파른 가공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화과제를 발굴·마련할 것을 당부함
- 끝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한 16대 성수품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해줄 것을 주문함
- 회의에 이어 이 차관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수급동향을 점검함

####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 '22.1.14.(금) 10:00~10:30      ▪장소: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 참석: 기재부 1차관, 농식품부 차관, 해수부 수산정책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등

- 현장점검 결과 배추, 소·돼지고기 등 주요 성수품 가격이 아직 높은 수준이나, 명절 전 집중공급, 도축수수료 지원 등으로 설 전까지 가격 하락 유도할 계획임
- 이 차관은 한파·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설 전까지 리스크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발생시 즉시 대응할 것을 당부함

####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 발언

담당 부서 <총괄>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이상홍 (lsh0622@korea.kr)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형식 (044-201-2231)
		담당자	서기관	손경문 (philoson@korea.kr)
<공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태훈 (044-200-544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jiihyun77@korea.kr)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관계부처 여러분들과  
회의와 현장방문을 준비해주신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가파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일에 발표된 미국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2.6월 이후 40년만에 가장 높은 7.0%를 기록하였고,  
독일도 11월 5.2%에 이어 12월에도 5.3%를 기록하는 등  
‘92년 이후 최고치를 연속 경신하고 있으며,  
‘21.11월 OECD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8%로  
2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채소류 가격안정, 유류세 인하  
효과 등으로 11월 3.8%에 비해 0.1%p 낮아진 3.7%입니다.

다만 1월은 연초라는 시기에 맞추어  
제품·서비스 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  
전월비 상승률이 1년중 가장 높은 달에 속하며,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 전환, 설 명절수요 등 상방요인이  
다수 존재하여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물가관계차관회의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지난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등  
정부의 물가안정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현장 물가관계차관회의로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 ① 「1월 물가 집중관리 및 현장점검 계획」,
- ② 물가 부처책임제 첫 번째 안건인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 ③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을  
경제팀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 【 1월 물가 집중관리 및 현장점검 계획 】

첫 번째 안건은 1월 물가 집중관리 및 현장점검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월도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는 업제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적극 추진하여  
분야별 물가상승요인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함으로써  
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월중 각 부처가 소관분야별로 업제 간담회를 추진하고  
업제 애로사항 및 가격인상요인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정부 지원 등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공정위가 육제·아이스크림 업제의  
출고량 조절과 가격 담합사례를 적발하여 제재를 추진한 바와 같이  
여타 업제에서도 이와 유사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포착될 경우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소관부처와 공정위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소관부처 업제 간담회에 공정위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를 표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신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물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소관분야 품목 가격과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단기적인 가격인상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 차원의 구조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발굴한 물가안정 정책과제는  
물가 부처책임제 TF 논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 【 농축수산물 · 가공식품 · 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

두 번째 안건은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sup>2)</sup>입니다.

지난 12월 각 분야별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축산물 가격 강세 지속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8% 상승<sup>3)</sup>하였으며,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원재료비·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정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요인이 더해지며,  
가공식품은 전년동월대비 3.8%<sup>4)</sup>, 외식은 4.8%<sup>5)</sup>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농축수산물 물가는 공급여건 개선 및 지난해 기저영향<sup>6)</sup>  
등을 감안할 때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 물가 부처책임제 TF 논의를 거쳐 농식품부·해수부가 소관분야 대응방안을 마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상정

3) 농축수산물 물가 추이(전월비, %) : ('21.7)0.2 (8)2.1 (9)2.7 (10)△2.7 (11)0.4 (12)0.8  
농축수산물 물가 추이(전년비, %) : ('21.7)8.5 (8)5.6 (9)3.1 (10)0.5 (11)7.6 (12)7.8

4) 가공식품 물가 동향(전년동월비, %) : ('21.1)1.2 (4)1.7 (7)1.8 (10)2.8 (11)3.4 (12)3.8

5) 외식 물가 동향(전년동월비, %) : ('21.1)1.3 (4)2.4 (7)2.8 (10)3.4 (11)4.1 (12)4.8

6) 농축수산물 물가 추이(전년비, %) : ('21.1)10.5 (2)16.1 (3)13.3 (4)13.2 (5)11.3 (6)9.5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는 누적된 인상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추세에 있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부처책임제 취지를 살려 농축수산물분야 품목의  
가격과 수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용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물가 물가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소관분야별 물가 점검체제 구축·강화를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설 물가점검 특별대응팀(기재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  
수산물 수급관리 민관협의체(해수부)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조사·공개하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소비자 체감가격과의 차이를 더욱 좁힐 수  
있도록 aT 가격조사 대상 및 품목 수를 확대<sup>7)</sup>하는 한편,

피자·치킨 등 외식분야 가격 동향도 신규로 조사하여  
2월부터 매주 지역별, 브랜드별, 메뉴별 가격변동 결과를  
aT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변동을 인지하고 정확한 가격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물가점검체제 구축·강화를 토대로  
물가 인상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유기적인 협업과 체계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 [조사대상] (현행) 대형마트·전통시장 조사 → (개선) 온라인·SSM 등 포함  
[조사품목] (현행) 16품목 22종류 → (개선) 16품목 40종류(조사규격 다양화)

들째, 단기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1분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딸기, 꽃(화초) 등도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딸기의 경우 '21년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2% 감소한 데 이어  
작년 가을 병해 발생 등으로 12월 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크리스마스 등 연말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1월부터는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sup>8)</sup>되었습니다.

통상 11월부터 5월까지 4~5차례 수확하는 딸기 특성상  
1월 중하순부터 시작하는 2차 수확이 본격화되면  
딸기 가격이 현재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주요 재배지 생육상황과 출하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파에 취약한 딸기 재배특성을  
감안하여 농협과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재배농가 한파 대비상황 점검·보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꽃(화초)의 경우 생산면적이 전년대비 12.9% 감소하였고  
연초 기온하락으로 출하량은 감소한 반면  
1월 졸업식 수요로 1월초 가격이 평년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나,  
최근 가격이 하향추세<sup>9)</sup>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졸업식·결혼식 등 행사수요가 줄어  
1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딸기 도매가격 동향(2kg, 원) : (11.하) 27,344, (12.하) 47,026, (1.12) 34,011

9) 장미가격 동향(단, 원) : (1.5일) 20,421원 → (1.12일) 6,911원/단

또한, 가공식품·외식 업체의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용<sup>10)</sup>하고,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및 외식업체 육성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sup>11)</sup>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단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더해  
각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유통구조 및 불합리한 가격 결정구조 개선, 관측능력 제고 등  
물가의 거품을 근원적 차원에서 제거하는  
구조적 물가안정방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생밀접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결정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 가격 결정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란의 경우 공판장(도매시장)을 2개소 개설하여  
생산자와 유통상이 1:1로 가격을 결정하는 기존의 불투명한  
체제에서 벗어나 경매를 통한 투명한 가격결정 체제로의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초기단계로 거래물량이 많지 않아  
도매시장 가격이 대표성을 지닌다고 하기는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 거래물량을 지속 확대하여  
계란가격 결정구조를 근원적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유(原乳)는 수요에 상관없이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만큼,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생산자 위주 가격결정구조를  
수요를 감안하여 용도별(음용용, 가공용) 규모가 결정되고  
용도별 가격도 차등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10) 옥수수·설탕 할당관세 인하 및 물량확대, 계란 할당관세 인하 등

11)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22년 예산)1,130억원, (금리)2.5~3.0%

외식업체육성자금 : ('22년 예산)150억원, (금리)2.5~3.0%

아울러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제도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현재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비축물량 및 채소가격안정제 확대<sup>12)</sup> 등을 통해  
기상여건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수급 불안 발생에 대한  
정부의 수급완충 역할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물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분야 관측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수급 및 가격 동향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이를 물가 안정 대책 수립시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가공식품 및 외식 분야의 경우  
단기적인 금융·세제 지원에 더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업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규제완화 등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향후 가격 인상 요인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 】

세 번째 안건은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입니다.

정부는 설 물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난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1.10일부터 16대 설 성수품에 대해서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톤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12) '22년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물량을 전체 생산량 대비 17 → 20%로 확대

1.12일 기준으로 16대 성수품의 경우  
정부비축 및 계약물량 방출, 야간 도축 등을 통해  
44,199톤을 공급하여 당초 공급계획인 32,837톤 대비  
누적기준 135%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수품 특별공급기간 중  
닭고기, 계란, 밤·대추, 수산물, 쌀 등을 포함한  
다수 품목의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배추·무는 재배면적 축소 등에 따라  
향후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비축물량,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하여  
생산량 감소 및 한파 등에 따른 추가 가격상승에 대응하겠습니다.

사과·배는 공급물량 확대<sup>13)</sup>를 통해  
전년대비 15% 낮은 가격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돼지고기는  
설 대책기간 중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하여  
소고기는 작년 설보다 5.7천톤 많은 18.7천톤을,  
돼지고기는 22.7천톤 많은 67.2천톤을 공급하여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17일에서 29일까지 2주간 돼지 약 4만 마리에 대해  
한 마리당 최대 2만원의 상장·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한편,  
1.24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한우 암소 약 9천 마리에 대해  
한 마리당 15만원의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

13) (사과) 평시대비 2.5배 확대, (배) 평시대비 1.76배 확대

제란은 산란계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도 소강 상태이며  
산란계 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수급 불안 요인 발생시 할당관세 인하(8~30% → 0%) 등  
즉시 수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수산물도 설 기간 공급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태·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하여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이 가까워지는 만큼  
정부도 각별한 경제심을 가지고 남은 기간동안  
성수품 공급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 【 마무리말씀 】

어려운 물가여건으로 1월 물가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설 전까지 물가관계차관회의는 매주 현장방문과 연계하여  
정부가 마련·추진 중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이라는 각오하에 합심하여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